

1967

성도의 빛 5



“Sôngdo-wi Bôt”

제네트와 해티와 당신

宣 教 部 長 裴 一 文

아내와 나는 며칠 전에 가족의 밤을 갖고 우리 아이들 셋을 한 자리에 모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시골 농장에 살았던 해티라는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어떤 날 아침 해티가 닭 모이를 주려고 갔더니 엄마가, “너 저 헛간 구석에 있는 어미 암닭 비디 좀 잘 살펴보렴. 지금이 바로 병아리를 깹 시긴데 병아리란 놈은 잘 셀 수가 없거든. 그런데 어미 닭은 새끼 몇 마리가 나오면 곧 그것들을 데리고 동지를 떠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깨이지 않은 알은 싸늘하게 식고 그 안에서 병아리는 죽는단다.”

해티가 헛간 제 동지에 있는 어미 닭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나나 다름가 병아리 세 마리가 동지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비디는 제법 어미다운 소리를 내면서도 매일 매일 모이를 주러 오는 해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티는 동지로 손을 넣어 알을 한개 꺼냈다. 그는 꺼낸 알을 조심스럽게 귀로 가져가 소리를 들어 보았다. 그랬더니 알 속에서 툭 툭 알을 쪼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그 안에서 알을 쪼고 있었고 그알엔 벌써 금이 가 있었다.

“아이 가엾어라 네가 알을 깨려면 꼭 오래 걸릴테니 내가 도와 줄테다. 필경 비디는 네가 알을 깨기 전에 동지를 떠날테니 말이다.”

해티는 이렇게 말하면서 금이간 알을 깨고 병아리가 머리를 내밀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 다음 그 알을 도로 동지에 넣고는 계속해서 다른 알을 꺼내 들고 알 속에서 쪼는 소리가 나는 것은 모두 꺾질을 깨뜨려 주었다.

그날 오후에 엄마는 해티에게, “너 비디가 병아리를 깨는 일 벌써 잊었니?” 이렇게 말했다

“아뇨, 잊지 않았어요” 해티가 대답했다.

“염려하지 마세요, 비디가 병아리 한 마리도 등지에 남겨 놓지 않을 걸요. 거의 깨이게 된 알은 제가 모두 깨뜨려서 병아리의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았지만, 조용히 해티에게 말했습니다.

“이리와, 같이 가서 다시 살펴보자.”

엄마는 조용히 비디를 등지에서 내려 놓았습니다. 보송한 병아리 여섯 마리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쳐 들고는 삐악 삐악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해티 등지 바닥에 죽어 있는 병아리 다섯을 들어냈다. 그 병아리들은 미처 털이 마르기도 전에 죽어 버린 것이었다. 해티는 울상이 되어서, “엄마 병아리가 왜 죽었어요?” 이렇게 물었다.

“네가 그랬어,”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지만 괜찮다. 너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새끼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한번 한번 쪼아낼 때마다 강하게 되고 크는거야. 네가 껍질을 깨주었기 때문에 뚫고 나오려고 쓸 필요가 없었고 결국은 약한 그대로 죽어 버린거야.”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나서 팔마 자매와 나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들려 주었다.

다섯 살 짜리 딸 제네트가 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만 난 일하기 싫어. 난 새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새도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또 건강한 새는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음식과 살 집을 준비해야 하고 폭풍이나 사나운 새나 총을 가진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것 뿐인가 새는 저희 날개를 단련시켜야 하고 끊임없이 모이와 물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가 힘껏 날아다니면서 목청을 돋구어 노래하고 하는 생활을 즐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랬더니 제네트는, “새가 좋긴 하지만 새도 일을 한다면 차라리 난 내가 될테야”라고 했다.

결국 해티와 제네트는 우리가 언젠가는 배우고야 마는 그 교훈을 배운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 삶을 뚫고 길을 개척해 놓지 않거나 우리의 사명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너무 약화되어 결국은 죽는다.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 자라야 신앙을 굳건히 지킨다. 진정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나에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성도를 보여주면 나는 즉시 그들이 굳건한 간증과 복음의 사랑을 지닌 자임을 반증해 보이겠다.

만일 여러분이 내게 비활동적인 회원을 보여주면 그들의 영적 근육이 쇠퇴

하였음을 보여 주겠다.

영적 생활의 첫째 강령은 봉사다. 한국에 있어서의 회복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의 발전은 힘과 능력과 뜻을 바쳐 일하는 성도와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존한다. 왕국은 공상이나 게으른 복음 전도로서는 건립이 불가능하다. 그 밖의 다른 것도 왕국을 건립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므로써만 왕국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천재, 성공,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오직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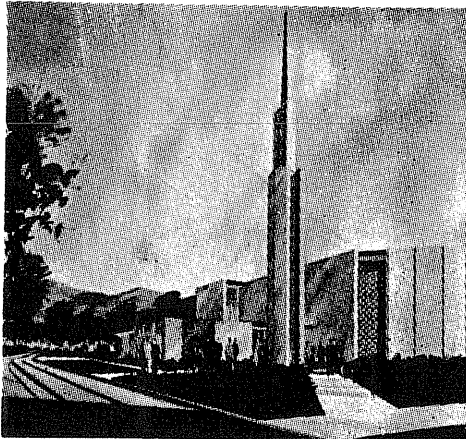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

휴비·부라운 부대관장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메케이 대관장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분은 교회의 대관장이시며 오늘의 예언자이십니다. 그 분이 친히 오실 수 없어 저를 보내시면서 대신 여러분을 만나뵙고 말씀드리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분을 하나님과 성신의 영이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바입니다. 이제 만민의 교회의 섭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이 교회는 미국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영국인이나 독일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그 밖의 어떤 특정한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인종이거나 구별치 아니하십니다. 그 분은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같이 하시기를 바라며, 이로써 여러분과 제가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을 빌어 제가 영국에서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봉사할 때 겪은 일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때 저와 동업인(법률가)이었던 영국인과 자주 접촉하여 교회 사업과 발전에 관하여 종종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그 분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이차 대전이 곧 일어나겠고, 그렇게 되면 당신도 집으로 가야할테니 가기 전에 당신 교회에 관해서 더 좀 이야기 해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당신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종종 말을 들었지만,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라고 했죠? 이상스러운 걸요. 어떻게 당신 처럼 젊은 법률가가 그런 이상스러운 일을 믿다니 이상한데요.」라고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고 성스러운 성경을 믿는 터이지만 오늘날에도 예언자가 살아 있다고는 믿을 수 없고, 더욱 믿기 어려운 점은 당신같은 사람이 그런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변호할 때 쓰는 그 법조문 처럼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삼일간의 시간 여유를 줄테니까 준비하여 세 시간 동안에 그것을 내게 설명하여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은 영국 최고 법정에 적을 둔 유명한 세 사람의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의회의 일원으로 일한 경력도 있었으며 나중에는 영국 정부의 귀한 자리에 오른 분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유명한 법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법률가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요지를 법적으로 설명해기를 원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눈 앞에 닥쳤으니 삼일 이상의 기간은 곤란하고, 그 안에라도 준비가 되거든 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때 저는 삼일 동안 썩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직석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당신은 법인이므로서,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판사로서 잘 알텐데,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철저히 설득시킬 수 있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적어도 50년을 미리 준비하여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더 준비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테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하 그것 참 반가운 소립니다. 그럼 이야기 합시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 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제가 법을 공부한 캐나다 지역에서는 사건을 규명할 때 다음과 같이 합니다. 즉 이야기된 것을 후에 서로 시험하는데 이는 서로 이야기한 것을 각자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는 자기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시험을 전제하는 예가 자기에게도 합당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믿는 소치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그래도 성경은 믿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성경 시대에는 하나

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분의 다음 말씀은 「그렇
 지만 요즈음에는 말씀하시지 않죠.」
 이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습니
 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내가
 잘 모르니 혹시 당신이 알면 이야기
 해 주시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분이 옛날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처럼 오늘날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옛날 아담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혹은 그 밖의 모든 예언
 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이
 죠. 그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
 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약 시
 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이고 말고요. 그 분은 친히 사
 람들에게 오셔서 그의 교회를 조직
 하셨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은 예수
 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
 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에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읽은 바 술 탈세스라든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불리운 사울
 이라는 그 사람에게 회개 개종에 관
 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이야기 하신 일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믿 지않으십
 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때 사울에게 이야기한 분이 분명
 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압니
 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후에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사울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 그
 리스도니라” 라고 하신 사실을 반증으
 로 들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
 셧었습니다. 「제가 로드(Lord)라는 말
 을 썼는데요, 영국 법정에서는 그것
 이 상대방에게 주는 합당한 인산테,
 제가 이야기 하기를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온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교통하고 이야기
 한 것은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선생
 님이 오늘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
 기하는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
 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저는 구태여 제 쪽에서 질문을
 전부 끌어갈 것 없이 지금까지 선생
 님이 대답하신 것을 가지고도 넉넉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
 로서 반증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과 쪽 이야기를 하시디
 가 인간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셔서
 이야기를 멈추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의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
 하시지만 하면 인간에게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육도 이 만큼 받고 우리가
 이 정도로 똑똑한이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타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 분은 다음과 같이 말 하셨습니다. 「부라운씨, 전 바야흐로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는 내가 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입니다만 어느 시대를 통하여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두 박해했고 결국은 순교를 강요했고, 그 분들이 생존시에는 믿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믿게 되는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범불가인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놀라실 일이 없고, 실상 그러한 사실은 늘 인간에게 있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의심은 전부 가셔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요셉 스미스에게 했는지 그 증거를 말해줄 수 없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든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예언자의 자격에 결여되는 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남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생님 보다도 더한 반대의 입장에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 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진 않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박해를 받아가면서 매

일 이 마을 저 마을을 쫓겨다니시며 생명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도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입니다만 어느 시대를 통하여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두 박해했고 결국은 순교를 강요했고, 그 분들이 생존시에는 믿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믿게 되는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은 평범한 인간의 능력으로서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룩합니다. 예를들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미래에 관한 일을 요셉 스미스는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임한 능력의 권세로서 그러한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러한 험악한 지경에서도 담대하게 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전해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한 수천씩 때를 지어서 사람들이 몰려와 록키산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언자 자신에게도 이상스러운 것이었으나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야기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경전이 되리라는 것도 말했읍니다. 이제 힝클리 사도께서 말씀하신 물몬경은 요셉 스미스가 번역한 것입니다. 학자가 되건 무엇이 되건 물몬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은 위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학식을 많이 쌓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그 금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몬경을 읽고 그것이 요셉 스미스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 쫘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불과 두 달도 못걸려 물몬경의 번역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사실과 그 밖의 많은 반증들이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분은 「그러면 교회의 성도에 관하여 이야기 해주시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몬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계 만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동부의 여러 주에서 쫘겨났으며, 이만 여명이 세운 나부시로부터 쫘겨나야 했습니다. 한 겨울에 이 폭도들은 성도들을 나부시에서 쫘아 내어 추운 강가로 몰아내고, 그 때에는 이미 구라파에서 신앙을 찾아 나브로 이주한 사람의 수요가 많은 때

였습니다. 그러나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 사랑스럽던 나브시를 쫘겨나고 재산을 빼앗기는가 하면 자기 집이 허물어지고 신전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평원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겠다던 약속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으로 불붙는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었읍니다. 저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유타주와 솔트 레이크시의 건립과 그 밖에 다른 마을의 건립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립된 복음은 유타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주에 퍼지게 되었고, 태평양을 넘어 남쪽으로는 뉴질랜드, 일본에도 왔고 동남아 한국에도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 들려주신 말씀은 정말 진실한 이야기였습니다.」라고 판사는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선생님 물몬경을 한 권 드리겠으니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다시 그 진리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책을 한 권 드렸고 그 분은 그 책을 제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다 읽고 나서 그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종교를 가짐으로 자기 모두를 몰수당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발발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가 2년 후에 다

시 영국에 갔을 때 이미 그는 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진리였다는 간증을 저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허가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회복된 진실한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식을 받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헝클리 사도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인 까닭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다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수천 수만 씩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원리 대로 생활함으로써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앞에 증거해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역시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곳에 종사하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회복된 복음에 관한 사실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한 바를 믿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몇 개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간증은 손가락 발가락끝에 까지 번지며 그는 자기가 새로이 발견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야겠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가 되라고 갈파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순간에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헝클리 사도님과 저는 4월 9일 테버나클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1,500 만내지 1,700 만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세계에 미치게 하도록 기구를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전파될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이 끝이 되리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라에는 젊은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지가운데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이 있거든 이 분들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 선교사들이 구도자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살아계셨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전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구세주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가 「네게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나를 네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극히 겸허한 마음으로 그러나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를 지니지 않은 채 베드로가 지녔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구세주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남겨 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있어서 복음이 과연 제게 무엇을 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한 사실들이 제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야 될 것을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사님께 거듭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국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비록 슬픔에 젖고 그리고 낙망과 환난으로 방황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서 허가되는 모든 축복이 전달될 때 그 축복을 받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모든 축복과 간증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으로 남겨 드립니다. 또한 장차 여러분들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평화와 조화와 사랑이 깃들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의 축복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마칩니다. 아멘.

부대관장님을 맞아

—지 영 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7)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6조)

“보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참으로 저는 교회의 머리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지닌 선견자요 계시자요 번역자요 예언자이니라”

(교리와 성약 107:92)

지난 4월 26일, 낮 12시 40분, 예언자와 사도를 모신 서북항공사 소속 젯트 여객기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김포 비행장의 활주로를 내려 앉아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미리 비행장에 나가 대기하고 있던 선교사들과 교회 회원들은 귀빈실로 이르는 광장에 서서 예언자를 맞이할 마지막 정열을 하였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열심히 질문하며 취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

다.

얼마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어느 새인지 귀빈실로 들어오신, 부라운 부대관장님은 골든비. 헝클리 사도님을 대동하여 귀빈실 문을 열고 성도들 앞에 백발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어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엄숙히 국제 공항의 하늘로 울려 퍼졌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후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힘껏 앞으로 나가자너의 가슴 부푸리니 모든것 잘되리...” 나머지 2, 3, 4절이 영어 가사로 계속되는 동안, 부라운 부대관장님과 헝클리 사도에게,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증정했다. 1883년 10월에 출생하신 부라운 부대관장님은 84세의 노령에 비하여 너무나도 정정하였으며, 피로의 기색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밝게 피어오른 미소는, 이국에서 성도들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듯 하였으며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지난 날의 사랑과 자비와

헌신의 역사를 역역히 말해주고 있는 듯 하였다. 주변에 몰려든 성도들과 따뜻한 악수를 하시면서,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검은색 세단차에 오르시기까지, 환영 나온 지도자들에게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부대관장님과 사도님이 타신 검은색 세단은 송 태섭 형제님이 직접 운전한 공군 째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부라운 부대관장님은 한국어판 물몬경을 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인 박대통령을 예방하였다고 한다.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이해하며 사진으로만 보던 오늘날의 예언자, 그러나 그분을 보좌하는 부대관장 휴 비·부라운 예언자께서 이땅에 와 계신 것이다. 전 세계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교회의 머리오, 계시자요, 선견자요, 통역자이신 예언자가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땅의 성도들과 이땅의 영들을 만나 보려 오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 순간에 예언자의 오시는 길을 찬양하며 영광을 노래하였으리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는 부라운 부대관장님을 연사로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핑클리사도, 선교부장단, 지방부장단, 그리고 몇몇 선교사들이 참석하였고 학교측에선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었다. 이 자리에서 부라운 부대관장님은, 기독교인이

면서도 다른 교리와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신학도들 앞에서, 물몬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거나, 편견적인 태도로 외면하는 그들에게, 물몬의 신앙과 태도를 밝혀주셨다. 시중 조용하고 위엄있는 음성으로 조리있게, 물몬들이 믿고있는 신뢰와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경전과 특히 물몬경에 관하여 피력하셨으며 흔히 외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밝게 설명해주셨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형제와 자매로 지낸다는 물몬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그러한 평화와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누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죽은 후에 누구나 부활하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려 재림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부대관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선교사제도, 재정관계, 물몬경에 대한 질문이 청중들로부터 나왔다. 이날의 강연회엔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으나 물몬에 관하여 전혀 모르거나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올바른 새 인식을 주었음이 틀림없으리라. 더구나 하나님의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었으니 듣는이의 감명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각인의 가슴에 기리 타오를 신앙의 불을 지펴 주었으리라.

저녁 7시 30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동부지부에 모여 예언자와 자리를 같이 하였다. 어떤

사람은 대구에서,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군산에서, 광주에서, 인천에서 전선에서, 이를 전에 혹은 사흘 전에, 혹은 금식을 하고 혹은 직장일을 제쳐두고, 혹은 온 가족이 전부 일을 전폐하고 예언자를 비우려 몰려와 있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언자께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예언자께서 예배당으로 들어오셨다. 모든 성도들은 기립을 하여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지지와 찬성을 나타내었다. 단위에 오르신 예언자께서는 성도들에게 두손을 들어 앉으라는 뜻을 겸손하게 표하셨다. 예언자께서 이땅에 발을 디디셨음은 이제 분명하였다. 이 기쁨, 이 평화, 이 축복, 이 영광을 그 누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예언자께서 함께하신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간,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된 시간이었으리라. 저녁 일곱시 반이 조금 지나서 성도들은 새로운 감회를 저마다 안고 차 중환 지방부장의 사회로 “말일에 우릴 인도하심”을 영어와 한국어로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였다. 천진스러운 유치원 어린이들이 귀여웁게 노래와 춤으로 이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들을 기쁘게 해 드렸다. 팔마부장님을 비롯하여 팔마자매와 세션형제님의 말씀이 있던 후, “내 주는 강한 요새”를 제창했고, 이어 골든 비·힝클리 사도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끝으로 부라운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었

다. 우선 외모부터가 남달리 건장해 보이시는 예언자께서는 여행에 지친 피로의 기색은 조금도 없이 단상에서 영감에 의한 말씀을 시작하셨다. 처음으로 한국성도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자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그 감격을 누가 감히 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분이 어린 시절은 캐나다의 남부 알버타에서 자랐고 영국에 선교사로 다녀왔으며 그후 영국 선교부장을 역임했고, 1908년에 부리감영의 손녀인 지나 와이·카드와 쏘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하여 8남매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다. 바로 이분이 캐나다의 레쓰부리지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했고 쏘트레이크로 이사하여 그곳 스테이크 회장을 또 역임했으며 1953년 10월에 12사도보조로 부름받았다. 5년 후인 1958년 4월엔 12사도로 지지되었으며 1961년 6월 21일 대관장회의 보좌가 되었고, 1963년 연차대회에서 맥케이 대관장의 제 1보좌가 되었다. 오늘날의 예언자 데이비드 오·맥케이를 보좌하고 전 세계의 수백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 대표자 부라운 부대관장님,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서 계신 것이다. 80평생을 즐곳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온 그의 과거 경험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해줄 수는 없지만, 이땅에 오셔서,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 주셨고 이땅에 있는 영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음을 사

량이 넘친 그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다. 예언자와 사도를 마지한 성도들은 글자 그대로 흥분과 긴장과 두려움과 기쁨과 평화의 감정이 엇갈린 가운데 있는 듯 하였다.

이튿날 오전 시간은 예언자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으나 주한 미국대사를 예방하시고 선교사들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것 같다. 한편 헝클리 사도께서는 병자를 축복하시고 유아를 축복하셨다고 한다.

정오가 되자 전국 각 지부 지부장과 지역 책임자, 그리고 지방부장단과의 특별 오찬회가 팔마 선교부장님 댁에서 열렸다. 한국의 교회지도자들이 부인들과 함께 초대된 이자리에서 부라운 부대관장님을 한사람 한사람 소개를 받으신 후 감회가 깊으신 듯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다. 인사가 끝난 후 지방부장단이 준비한 선물이 증명되었고 일문유치원에서 준비한 선물이 전달되었다. 유치원에서 드린 선물중에는 왕골 스리퍼가 있었는데 마치 손자들이 사드린 선물에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는 할아버지처럼 그것을 신어 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러이 보이시면서 기쁜 미소를 지으시며 고맙다는 답례를 잊지 않으셨다. 이어 팔마부장님의 인도하에 식탁에 앉았으며, 부라운 부대관장님을 중심으로 양편에 선교부장단과 지방부장단이 앉았다. 부대관장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진실로 영광스러운 축복이었고 보람

찬 경험이었다. 예언자와 함께 오찬을 들면서 옛날에 선지자를 대접했던 의로운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했다. 그들은 얼마나 선지자를 정중히 성의껏 모셨던가, 얼마나 그들은 그 일을 기뻐했으며 그로 인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던가, 바로 오늘 예언자와 사도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한 한국의 자매님들은 얼마나 기뻐했으며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 예언자 가까이서 식사를 할 때엔 어떻게 처신해야 할런지, 조심스러운 생각만이 감돌아서 미처 판단을 못했으나 지나고난 지금은 왜 그때 내가 웃 어른에게 음식을 권해 드리는 동양의 미덕을 보여 드리지 못했는가, 왜 공경을 더 못했는가 하는 후회가 심하다.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버릇없이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두려움도 자못 크다.

한시부터는 국기 계양대 낙성식이 있었다. 이 색다른 교회 모임엔 김현옥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이 참석하셨고 3. 1운동의 선구자, 33인 중 한 분이신 이 갑성 선생님께서 참석하셨다. 태극기가 계양되고 애국가가 독창으로 울려 퍼졌다. 이어 부라운 부대관장님께서 신앙개조 12조의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라는 물문의 신앙을 중심으로 말일성도의 준법정신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 말일성도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선이 있을 뿐이다.

오후 3시, 이 땅의 성도들을 뒤로 남기고 부대관장님과 사도님이 쏘트레이크로 떠나셔야 할 시간이왔다. 교회 연령이 적기에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예언자를 대접했는지? 하나님의 종에게 무엇을 보여드렸는지?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게 해드렸는지? 예언자께서는 과연 이땅에 들르신것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하나님의 한 대표자를 환송해야 했던 한 성도의 마음속엔 두려움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를 “약수”를 하면서, 마지막이 아

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저마다 다른 느낌을 안은채 예언자와 작별하였으리라. 언젠가는 어느 기회에 어디선가 꼭 만나리라는 내일의 꿈을 안고, 트랩을 오르시는 예언자를 향하여 송영대에 나간 성도들은 마음껏 마음껏 손을 흔들었다. 두손을 번쩍들어 답례를 하시는 예언자, 분명히 이나라와 이민족과 이땅의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계셨으리라.

예언자께서 탐승하신 여객기는 또 다시 폭음을 남기고 멀리 멀리 사라져갔다. “부디 안녕히 가시옵소서”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물 문 의 성 공 기

최 장 순 역

독특한 교회—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물문은 1940년 이래 국내 외에서, 그 회원수가 삼배로 증가해왔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의 생활방편”이기도한 그 교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즉 물문들은 세상의 수 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독특한 신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크게 세상의 주의를 끌고 있다.

물문인으로서 미시간 주지사를 지내는 죠지 롬니는 1968년도 백악관의 주인이 될 공화당의 유망한 후보로 물문에 오르고 있으며 물문들은 전국적으로 점점 더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우의를 쌓아가고 있다.

25년 전만해도 이 교회는 약 8십만명의 회원에 불과했고 그들 대부분이 유태와 그 인근의 아리조나, 아이다호 및 남 칼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다.

오늘날, 물문 선교사들은 매달 수

천명을 개종시키면서 전 세계를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의 전 회원수는 무려 2백 4십만에 달하고 있다.

생활 방법 그들의 종교가 일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단합된 하나의 사회집단이라는 것을 이 나라(미국)의 서부에 위치한 이 교회의 “본고장”에서 가장 잘 찾아 볼 수 있다.

훌륭한 물문 가정은 일주일에 사흘 내지 나흘 저녁을 교회일 즉, 성경 공부, 병자 방문, 비회원을 개종시키는 일, 혹은 교회에서 관리하는 소년단의 제반 활동을 감독하면서 보낸다. 이러한 일들은 부인들의 상호부조회와 이와 비슷한 보조 조직들의 여러 가지 임무에 참가 되는 것들이다.

물문의 성인들은 수입의 십분의 일을 교회에 내게 되어있으며, 전 가족들은 한달에 두 끼를 금식하여, 이 두 끼의 식사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회의 큰 복지 계획에 기증하게 되어있다.

이 교회의 지도자 직에 있는 어떤

분은 “우리들의 종교는 안이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종교가 개인의 전체 생활을 주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쉴트레이크 시에 사는 물몬들은 그들의 뉴스를 교회가 운영하는 일간지에서 읽게되며, 교회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시내로 들어가서는 교회가 건립한 새 업무처에서 일을하고, 교회 소유의 차고에 차를 정차시키고, 또 교회가 소유한 그 시에서 가장 큰 호텔에 들어가 일할 수 있다. 회원들의 가정은 일부 교회가 운영하는 은행을 통하여 용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도 교회 소유의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을 사용한다.

더구나 부인들은 시온의 상품 소비조합이 운영하는 두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기깝게 교회사업에 참여하며 그 아들과 딸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학교인 유타주 푸로보에 있는 부리감 영 대학의 학생이 될 수 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 소유의 “복지기구”를 통하여 음식, 의복, 약품 및 필요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는 이 구호에 대하여 자기의 신체적인 능력이 자라는데 까지 일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태만한 물몬은 그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교회

의 비용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교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로, 주(유타주) 관공서의 전화 번호부가 한페이지 미만임에 반하여 쉴트레이크 시의 교회 전화 번호부는 두 페이지를 넘는다.

“보수적인” 견해 “교회가 유타의 비 물몬 혹은 소수의 이방인들간에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게 되는 요인이 바로 이 보수적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교회는 “전체주의적”이며 그 회원들은 “광신자들”이라고 한다.

비 회원들 뿐 아니라 일부 물몬들도 흑인들이 교회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신권을 받지 못한다는 교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이 문제가 1968 년도의 주지사 롬니의 전망에 상당한 비중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교회 회원들은 정치 및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견해라는 설이 압도적이다.

“타락한 자들” 물몬들 중에는 교회의 주장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여 명목상의 회원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외부인에 해당하는 “재 물몬”이 된다.

이러한 물몬들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혹은 가끔 불규칙적으로 참석한다. 그들은 훌륭한 물몬들에게 금

지되어 있는 것 즉 담배를 피운다던지 또는 알콜이나 차를 마시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파문을 요청하거나, 교회에 적의를 품은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당국으로 부터 파문을 당하지 않는 한 물몬으로 간주되고 자신들도 계속 물몬이라고 생각한다. 파문이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수년이 지나도록 별로 없다.

교회에 개종한 사람중에서 태만해지는 사람 수는 매년 9만명 이상을 헤아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몬들이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괄목할 만한 일이다. 어느 착실한 물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책 물몬이 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회 생활도 완전히 재조직 해야 할 것입니다. 일 주일에 셋 혹은 네 밤을 채운다는 일도 큰 일이며 새로운 친구들을 다시 사귀어야 하고 자신의 관심사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해야 할 것입니다.”

물몬의 기원 물몬 교회는 1800년대 초엽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당시 미국인들은 종교 부흥 운동 뿐만 아니라 공유 생활을 강력하게 주장한 “Brook Farm”과 같은 유토피아 형성 시도에 몰두해 있었다.

뉴욕주 북부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청년, 요셉 스미스가 “물몬경”을 발행한 것이 1830 년이었다. 그는 이 책을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자기

에게 준, 근처에 매장되어 있던 고대 판에서 번역했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기원전 600 년경에 미 대륙으로 건너간 유대 이민들의 얘기를 기술하고 있다.

물몬들은, 주어진 운명에 충실했던 이 이민단들중의 한무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 귀의했으며 배교자가 되었던 다른 무리들은 결국 인디안 부족의 근거를 형성했다고 믿는다.

“물몬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기원 440 년 경에 미 동북부에서 벌어졌던 대 전쟁에서 배신자들에게 의하여 전멸되었다고 시사한다. 그 얘기 중에 나오는 예언자 물몬과 그의 아들 모로나이는 후에 요셉 스미스에게 전해진 판에 기록된 고대 기록을 보존하였다.

오늘날 물몬들은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며 그리스도는 신성한 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몇가지 신조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정신과 상이하하다. 이 상이한 신조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 물몬의 가정에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나란히 펼쳐있다. 또 두개의 다른 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간주되며 전자는 “교리와 성약”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준 계시들의 편찬물이며 후자는 “값진 진주”로서 구약 성경에서 유실되었던 단편들을 스미스가 애급 무덤

에서 발견된 고대 애굽 문서에서 번역한 것이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된 혹은 회복된 교회 즉 프로테스탄트 종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물몬의 집회 장소는 대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훌륭한 “성도”들만이 전 세계에 13개 밖에 없는 신전에 들어가서 교회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초기 미국의 유토피아적 이상뿐 아니라 구약성경의 열광에 젖어있던 이 종교는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종파중 하나로 노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이곳 저곳으로 쫓겨 다녔다.

1844년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이 카테지 감옥에서 폭도들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며, 이년 후에는 수천명의 “성도들”이 오레곤이나 칼리포니아로 가는 도중 다른 개척자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외지고 건조한 지역에 있는 새로운 “고향”을 찾아 서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거대한 여행 역사가들은 요셉 스미스의 후계자인 부리갑 영에 의하여 조직되고 인도된 이 소달구지 여행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서사시의 하나라고 묘사하고 있다.

수백명에 달하는 물몬들이 질병, 험벗음,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어떤

가족들은 실제로, 두개의 바퀴가 달린 손수레를 밀고 끌면서 쏘트레이크 근처의 새로운 정착지를 향하여 1300 마일을 걸었다. 이들 중에는 남자, 부인, 아이들이 있었으며 그들중 $\frac{1}{6}$ 이 사망했다.

이런중에도 물몬 개척자들이 기약할 수 없는 변방 지대를 변창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관개사업을 하고, 땅을 파는 것을 본 많은 방문자들이 크게 감명을 받았다.

물몬들이 쏘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하기 시작한지 이삼년 동안에 500 마일에 걸치는 서부 전역에 마을들을 건설하고 있었다. 1857년까지는 이 정착지의 수가 135개에 달했으며, 칼리포니아, 아이다호, 와이오밍, 아리조나 및 뉴 멕시코에 약 7만 6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오늘날 물몬들은 아이다호와 아리조나에서 특히 강한 세력을 펴고 있으며 아이다호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단연 최대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여행자들이 서부지역의 많은 곳에서 호텔 방에 “Gideon”의 성경뿐만 아니라 물몬경이 함께 있음을 찾아 보기란 아주 쉬운 일이다.

이 교회는 초창기에 법적인 조치로써 교회 체제를 지배하고 교회의 재산을 수년간 장악했던 미국 정부와의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또한 교회 자체 내에서도 분열과 알력으로 그의 통일성에 위협을 받았다

가시 돌친 교리의 하나 이와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주로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말한 일부다처 주의 교리였다. 1890년 교회 당국에서 이 교리를 무효라고 발표할 때 까지 이 교리는 사실상 교회를 미국 정부와 공공연한 싸움으로 이끌어 가게 했었다.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분리” 종파들은 여전히 일부다처를 믿고있다. 유태와 아리조나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이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에 달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발견되면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교회는 구약의 단순성과 열의를 강하게 풍기는 “기독교 정신에 속한 유태주의”라고 한 그 위기에서 구출되었다.

반면 이 교회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 율법준수, 개인의 책임완수 및 공공의 복리 사상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청교도의 이상과도 상통한다.

일년간의 양식 보급 유태, 남부 아이다호 및 북부 아리조나에 산재해 있는 십여개의 작은 도시들은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물몬들이 살고 있다.

일례로,

솔트레이크에서 동남쪽으로 약 40 마일 떨어져 있는 히버 시는 그 시내와 시외에 약 5천명의 인구가 있으며 그들중 240 명만이 비 물몬들이다.

이 지역에서 50 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들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의 모두가 각 가정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통조림으로 된 일년간의 식량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물몬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히버 시에는 네사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경찰국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일을 하며 때로는 짓는 개들을 단속해 달라는 불평을 해결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문들은 잠그지 않은 채 일년 줄전에 경찰이 “문을 깨고 침범한” 사건을 보고 했을때 시민들은 약간 놀랐다. 그러나 지금도 가족들은 집이나 차의 문을 잠그는 일에 썩 무관심하다. 엘버트 윈터로스 시장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보기에 따라 이곳은 평화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침체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물몬들이 관리하는 여러가지 청년 활동 즉, 극장, 스포츠, 맨싱 및 소년단 활동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966년도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은 사년동안 132명 중 16명 만이 낙오되었고 졸업생중 과반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매주 이 소도시를 방문하는 천주교 신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종교 활

동은 전혀 없다. 그러나 비 물몬들도 소년단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어떤 비물몬들은 더러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유타 재단의 이사인 헨리 피어슨은 물몬교를 광범한 규모에서 보고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유타의 일반적인 시책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인 모든 분야가 초기 물몬 개척자들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현금거래를(외상 거래를 하지않고) 바탕으로 하는 주의 지불 원리는 검약이라는 물몬의 원리 원칙에 맞게 되어있다. 재산 세율은 국민 평균치보다 훨씬 적다.

1963년으로 마지막 해였던 지난 10년간에 구조사업에 지출한 국가 및 지역의 지출 평균이 40%로 증가된 데 반하여 유타주는 20%로 감소되었다. 1963년도, 유타주의 일인당 소비액은 국민 평균치의 $\frac{2}{3}$ 보다 적은 6.38불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라고 한 물몬의 신조에 근거를 두어 교육 사업에 대한 지출은 높다. 유타주는 전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적을 두거나 과학자로서의 길을 추구하는 젊은이의 비율이 가장 높다.

고용주들은 그 주가 일반적으로 높은 공업 생산을 보이며 계획적인 결근율은 낮다고 평가한다. 한 전자공학 회사는, 유타에 있는 공장이 국가

전체의 $\frac{1}{8}$ 에 해당되는 생산량을 확보한다고 시사했다.

유타의 범죄율은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낮다. 작년도에 2백만 인구에 달하는 쏘트레이크 시는 살인, 강간, 혹은 마취, 중독 범죄로 체포된 년소자들이 전혀 없었다고 시사하였다.

무보수의 성직자 이 사회의 이러한 추세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는 이 교회 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다.

후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들은 12세에 달하면 신권을 받을 수 있다. “멜키세덱 신권” 즉 높은 신권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아론 신권” 즉 낮은 반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모두 6십만명이며 대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모임 즉 50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와드”는 한사람의 감독과 두 사람의 보좌에 의하여 관리된다. 이와같은 모임이 열개쯤 되면 한명의 부장과 두명의 보좌에 의하여 인도되는 “스테이크”가 된다.

한 교회의 당국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회와 사회의 일에 관련되게 하거나 그런 일에 관련된 기회를 갖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 회중들이 상당히 늘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두개의 와드로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역원의 수가 배가되어 따라서 봉사할 기회도 배가됩니다.”라고 하였다.

전 교회의 최고 부분에는 “총 관리

위원들”이 있고, 이들의 최고 역원은 대관장이며 예언자로서의 명칭도 갖고 있으며, 그 직을 중신적으로 삼는다. 현재 이 직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갖고 계시며 93세의 노령이시다.

대관장을 보조하는 네명의 보좌와 십이 사도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른 여러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자기들과 같은 계열이라도 대개는 봉사한 년조가 많은 사도들 중에서 대관장을 선출한다.

이 지도자들 아래에 23명으로 구성된 고위 역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같이, 6천명의 회중과 51개국에서 전도하는 만이천명의 선교사들과 세계의 종합 대학과 단과 대학 물몬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190개의 종교단체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2,000개의 쉼이나 및 15개의 병원을 관리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사업 다른 여러가지 일중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교회의 복지 계획이며 이것은 매년 역불의 기금으로 십만명의 물몬들을 돌보고 있다.

각 와드의 감독들은 상호부조회를 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알게 된다.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은 감독의 주문서를 가지고 100여개나 되는 창고중 가장 가까운 “감독의 창고”에 가서 물건을 받아온다.

매일 이러한 창고에는 의복, 음식,

기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 물건 중 어떤 것들은 물몬들이 경영하는 통조림 공장이나 의복 공장에서 들어온다.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량이 세계 각처에 있는 평범한 물몬들의 노고로 인하여 들어오고 있다.

「교회 회원들은 들이나 밭에서 과일과 채소를 건어들여 통조림 공장에 변호사나 보내는 일로 봉사하며 실업가도 저들의 아내와 함께 봉사의 작업에 참여한다.」

만약 누가 쏘트 레이크시 복지 스퀘어에 있는 가장 큰 “창고를 방문한다면 그 선반에서 뉴욕에 있는 물몬들이 만든 치약, 캔사스시의 평신도가 생산한 야고, 하우스톤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제조한 땅콩 빠다, 아리조나의 “성도들”이 통조림한 포도 주스, 그의 전국의 물몬들이 만들고 제공한 수 많은 물건들을 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 알선 불쌍한 무수한 사람들, 즉 장님 “절름발이” 연노한 사람들 및 정신 박약자들이 창고와 기타 교회 운영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교회 복지계획 담당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사기를 돌구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난뱅이가 아니라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함을 발견합니다”라고 하였다.

수년전 “뉴 딜” 정책을 실시하던 때, 교회는 “태만에서 받는 저주를 없애고, 요행을 바라는 악을 없애고 또 다시 우리들 사이에 자립, 근면, 절약 및 자존심을 이룩하자는 것을 교회 복지 계획의 목표로 삼았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움도록 하는 것이며 다시금 일하는 것을 교회 회원들의 지배적인 생활 이념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보수적인” 정치가들과 동일한 토착을 걷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십이 사도의 한 사람인 에즈라 테프트 벤슨은 보수파 공화당의 지도적인 정치가이며 그의 아들 리드는 존 버취 협회의 와싱턴 사무실의 책임자이다.

거절당한 연방정부의 후원 물품들이 관리하는 기구들은 연방정부의 무상 원조는 무엇이든지 거절한다. 「부리감 영 대학 총장인 어네스트 윌킨슨 씨는 이 대학이 연방정부의 여하한 보조금도 받지 않고 6천 만불을 소요하는 건축 계획을 통하여 운영된다고 지적하였다.」

작년에 예언자인 맥케이 대관장과 그의 부인은 의회에 있는 11명의 물품들에게 “일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투표에 앞서 의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준 일할 특권을

찾고 유지시키는 데에 자유의지를 행사할 권리”를 폐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서한을 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수적”이라고 한 교회의 양상은 종전보다 그 빛이 흐려지고 있다.

의회에 있는 11명 중 7명이 “일할 권리”에 관한 법률 폐기에 찬성 투표를 했으며 주지사 롬니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자기의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유타주 자체 내에서도 주지사 칼빈 엘렌튼과 양 의회는 민주당이며 그 주는 거대한 자본 활용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인들은 변화하는 속도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어느 교육자는 말하기를

교회는 성서적인 해석을 충실하게 믿으면서 지식인들 특히 과학계의 지식인들을 상당히 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유타 대학에 대해서는 절대로 명령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교회는 허무 맹랑한 지식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다. 교회는 상당히 주지주의적이며 축적적이면서, 제멋대로 상상에 맡기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물품들은 자기들의 신학을 분명히 한정된 한계 내에서 생각한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은 요셉 스미스 당시 보다 그 생각하는 세계가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

교회의 엄격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한가지 방편으로 최근에 몇몇 물품 사상가들은 “Dialogue”라는 잡

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교회의 지배를 벗어나서 발간되었는데 어느 독자의 말을 빌면 그 최초의 관은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못되었다”는 것이다.

비물론들의 견해 “이방인들” 중에는 아직도 물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외부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교회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교적인 방법으로는 그들과 절대로 가까워 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보다는 덜 할른지 모르지만 일하는 중에 서로 사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들의 선교사로서의 열의가 또한 “이방인들”과 “잭 물론들” 간에 적개심을 일으키게 한다. 몇년 전에 교회에 가기를 그만둔 한 부인은 말하기를 “그들이 나에 대한 관심을 버리기까지는 참으로 수년이 걸렸답니다. 나의 의심이 얼마나 근거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몇 시간이고 얘기할 태세를 갖추고 밝은 미소를 띤 방문자가 매주 혹은 이따금 틀림없이 찾아 왔답니다. 「그러나 마치 사람들을 바쁜 가운데에 몰아넣어 잠시 머물러서 어떤 것을 물어볼 겨를도 주지 않으려는 것 처럼 보이는 끊임 새 없는 교회일에 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파되는 교리 그러나 교회는 여

전히 성장하고 있다.

매년 6천 명이나 되는 새로운 젊은 남녀들이 미국 혹은 해외의 곳곳으로 가서 보무수로 이년간을 완전히 선교 사업에 바친다. 그들이 교회에서 받는 돈은 자기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필요한 교통비에 불과하다. 매일의 생활비는 자신들이나 때로는 대단히 곤궁한 중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 의하여 제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이 혁신적인 선교사들도 최근 물문이 성장하는 비결의 부분적인 해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유타 대학의 철학 교수이며 미국의 전 교육 국장이었던 물론인 스티링 맥뮤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종자는 신앙깊은 물론의, 완전히 “안정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매혹 되어……성경에 동화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물론 교리 중에서의 가정이 자기로 하여금 현대 사회의 억압을 쉽게 견디게 함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물론의 가정은 종교적인 이상과 일상 생활간의 갈등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변전하는 상태 물론들은 교회의 상태가 변해가고 있음을 시인한다. 정부로부터 구호금을 얻어가는 물론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에 관한 불평의 소리가 들리며 최근 이곳에 있는 교회 본부에서 한 부인이 흑인에 관한 물론의 교리를 반대하는 농성을

별었다는 얘기가 있다. 신앙의 성채인 부리감 영 대학의 월킨슨 씨는 말하기를

“과거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월급 정도에 개의치 않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교수들이나 마찬가지로 보다 높은 지급을 바라고 있다”

교회가 과거에 종종 험난했던 어느 때 보다는 더 많은 회원과 세력을 얻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어느 회원은 교회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였다.

“과거에는 우리가 땀과 곤궁에서 살아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어진 과제이다”.

38 페이지에서

(기자는 허둥지둥 김형제와의 회견을 끝맺고 정중한 인사를 차리지도 못한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전에 서부지부장을 역임한바 있는 김 중균형제는 불의나 편견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굳은 성격이지, 공과 나를 예리하게 구별하는 강한 면을 보여주면서도 조용한 움직임에 어울리는 겸손의 미덕을 겸비한 믿어운 성품의 소유자야. 이처럼 훌륭한 지부장을 마지한 성복지부는 틀림없이 발전하리라. “최 도증자매의 폭넓은 내조의 공도 있을 테니까” 이것은 황급히 달려 나가는 기자의 머리속을 스쳐간 흐릿한 생각들이었다) (달)



용기의 기념비

마르타 스미스 젠슨

솔트레이크시, 하이랜드 드라이브 2730 번지에 무겁게 서있는 하이럼 젠슨의 집 건물 북쪽에는 방 두 개 짜리의 초라한 오막집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848년에 세워진 집이다. 순교한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의 미망인 메리 윌딩 스미스가 이 작은 집에서 열 살난 요셉, 열 두살난 마르타와 아직 십대인 존등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존은 일찍 돌아가신 하이럼의 첫째 부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후에 교회의 축복사가 되신 분이며 요셉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 6대 대관장이 되신 분이다.

요셉 에푸 스미스 대관장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에게 이 작은 집에 대하여 말할 적이면 자기의 어린 시절을 빼놓지 않고 말해 주고는 했다. 한 번은 오두막집과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의 생각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미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어머니가 이 집을 지으셨는데, 그 어려움이야 말할 수 없었던 고통이었지. 나는 지금 이 시각에도 피로하고 형색이 말이 아닌 어머니가, 그러나 샘솟는 용기와 신앙으로 저 언덕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어. 언제나 거두어 들인 곡식 중에서,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 완전한 십일조를 마치고 있어. 그 때에 나는 조그만 아이였지만, 어머니가 거둔 곡식 중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십일조로 바치기 위하여 마차에 싣는 모습을 보고는 했지. 어머니와 함께 마차를 타고 십일조를 헌납하러 가는 중에도 여덟살 먹은 나의 마음은 왜 어머니는 그토록 애써 거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바치는가 하는 의아한 마음은 한시도 떠나지 않았었어. 나는 아직도 어머니가 이랑 끝에 가서서는 머리를 숙이시며 씨 뿌리는 모양을 실체

로 보는 듯 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이렇게 물어보았어. 「“어머니는 씨를 뿌리시면서, 이랑 끝에 가시면 으레이 머리를 숙이시는데 그때마다 기도하시는 건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셨어, “요셉, 나는 뿌리는 씨 하나 하나에 기도를 드린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씨를 가꾸시며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열번째 양, 소, 빠다, 병아리, 달걀, 돼지, 송아지, 염소를 틀림 없이 십일조로 바치셨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차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풍요한 것이었어.」

「어느 날 십일조를 내러 교회에 갔을 때, 서기는 이렇게 말했어. “십일조를 내시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요. 자매 보다도 더 형편이 좋은 사람도 많은데요”」

「나의 축복받은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윌리엄,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막을 셈인가? 내가 만일에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에게 주시던 축복을 거두어 가실걸. 내가 십일조를 바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법에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이야.」

「훔딩 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부른다, 불굴의 용기를 소유한 여자의 표본이었어.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누구의 도움에도 의존한 적이 없다는 것이야. 어머니가 적은 가족과 어머니의 동생이며 신앙이 깊은 훔딩 삼촌을 이끌고 나부를 떠나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지. 나이 어린 요셉이 소 떼를 몰아 어머니를 도운 적이 많았어.]

맨발의 요셉 에푸 스미스는 슈가 하우스 언덕에서 소를 먹이고는 했다. 밤이면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고는 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먹을 것을 작만하여 주셨으며 그의 피로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면 곧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고는 했다.

부리감 영은 하이럼의 미망인에게 집을 지을 만한 땅과 재목을 주셨으며 어머니의 동생과 두 아들이 손수 집을 지었다. 바닥이 마루로된 2칸짜리 방 두 개였다. 지붕은 원목을 그대로 사용한 보잘 것 없는 초라한 집이었다. 이 집은 조그마한 샘가에 자리잡고 있다. 장남인 존이 성장하여 집 옆에 자기의 집을 지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외롭지 않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파이오니어 스키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다.

메리 헬딩 스미스는 이 오두막집을 사랑으로 채웠으며 자녀를 위한 가정으로 만들었다. 그 집은 용기의 기념비로 오늘 날까지 남아 있다.

★ 마르타 스미스 켄슨은 요셉 에푸 스미스 대관장님의 딸이며 하이럼, 메리 헬딩 스미스의 손녀로 그의 남편 헤롤드 에취 켄슨과 함께 솔트레이크시 힐사이드 스테이크부의 마운틴 비유 제3지부의 회원이다. 장년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켄슨 자매는 딸일성도 고등학교를 졸업, 부리감 영 대학에서 수학, 테버나클 합창단의 일원이다. ★

전 종 철 역

오늘을 보람 있게

— 博士學位의 榮光이 있기까지 —

車 鍾 煥

〈서울師大講師〉

편집자주 : 다음은 5.16 장학회 청오 회지 창간호에 실린 차종환 한국 지방 부장님의 글을 전재한 것이다.

역경 속에서도 굽힘없이 공부하려는 여러 독자들과 만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던 차에 지면으로나마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고 친근감이 든다. 요즘은 흔히 젊은 층은 기성세대를 불신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층이 경박하다는 이유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해 보면 기성 세대에게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 그들은 조국을 잃은 쓰라린 불행에 처해 있었기에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키 위해 온 정력을 다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그런대로 보람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비교적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젊은 층에게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것 같다. 빈곤의 악순환이란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가난하다. 예쁘고 튼튼하게 만든 미국 제품이 좋고 일본 제품이 좋다. 그런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미국이 좋고 불탄서, 일본, 독일이 부럽다. 왜정 때 조국을 찾기 위해 첫째도 왜놈을 쏘어 뜨리려는 의욕, 둘째도 왜놈을 쏘어 뜨리려는 그 승고한 조국애에 불탔던 지금의 기성세대! 것처럼 조국애에 불탔던 그 정열이 오늘날도 타고 있는가? 자기의 안일한 화평을 위해 조국을 쪼먹고 있는 諸요인을 목인 내지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젊은 층 역시 우리 민족을 위해 얼마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성세대를 닦하는가? 그들은 행동하기 위해서 얼마 만큼의 성실한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젊은 층에게서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 할 터전이 없다고 뼈골빠지게 20여년

간을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잘된 놈들은 Background가 좋은 놈들이더라고, 열심히 공부해 봐야 결국은 부모 잘 둔 놈들이 출세하니 공부만 해서 될까? 적당히 요령껏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마다 나의 가슴은 몹시 아프다. 왜 그들이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 초조하고 걱정하여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오늘을 허비하게끔 우리사회는 구성 되어 있는가?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의식주에는 아무 신경 안쓰고 오로지 자신의 번영 발전 나아가서는 재미있는 나날을 보내는데, 우리는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이처럼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런 나머지 미리 겁을 먹고 미리 낙심하고 풍성치 못한 메마른 정신으로서 적당히 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이러한 원인은 여러가지로 설명되어 지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어머님들이 오늘을 위해 그들의 시간을 가치있게 착실히 보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그렇지 못한데서 오늘의 정신적 안정을 잃고 초조하게 만든 원인이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환언하면 어떻게 하므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를 없애고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여러 정치가, 사상가, 종교가, 학자 등등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도 얘기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착실하고 부지런히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가는 정치를 위한 한 순간 한 순간을 이어가는 사업을 위한 순간들을, 나아가서 학생들은 공부를 위한 1초, 1초를 가져야 한다. 학생이 공부를 떠났을때 그는 이미 학생은 아니다. 공부 잘하도록 피땀 흘려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자식도 아니다. 조국을 위해 도움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국가의 국민도 아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귀찮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돈과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어서는 안된다. 필자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울고 불고 하는 바람에 여기 저기서 돈을 얻어 겨우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던지 우등으로 졸업을 하기는 했으나 나는 슬펐다. 대학에 진학해서 더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교감 선생님의 많은 도움과 협력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시골 교감 선생님이시라 돈의 여유가 없으셔서 무척 애태우시다 드디어 서울로 가서 대학에 합격되면 고학으로 공부하려고 일러 주셨다. 고학이라도 당시의 가정교사 같은 것은 생소하였기 때

문에 생각도 못하고 신문 배달을 하리라고 마음 먹었다. 서울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나는 밥을 적게 먹는 연습을 하였다. 서울 사람들은 밥을 적게 먹는다고 누가 그러기에 말이다. 흥 잡히지 않고 돈이 절약될것 같아 좋았으나 실행이 잘 안되었다. 나 다닌 학교가 농업 학교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생물과를 지원했다. 꿈에도 그리던 서울대학에 합격하였다. 서울 거리를 익히려고 골목들을 눈여겨 보면서 걸어 다녔다. 신문 배달부, 구두닦이, 지게꾼들을 유심히 보면서... 행운이 돌아와서 나에게 가정교사 자리가 생겼다. 처음에는 무척 기뻐다. 힘든 노동을 각오하고 왔는데 편히 앉아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가정교사가 처음과 같이 기쁨만으로 유지되지는 않았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 송구스러운 마음 괴로운 심정 표현 할 길이 없다. 차라리 뛰어 다니며 버는 것이 마음은 편할것 같았다. 공부 시키고 자는 틈에 공부하자니 2시까지는 잘 수 없었다. 매일 4시간 정도의 수면밖에 취하지 못했으나 나에게는 피곤하거나 피롭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온갖 피로움을 달게 받겠다던 나에게 오늘이 피로운 날이 아니라 무한히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가 있다. 그가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일명 물몬교)의 초대 한국지방 부장이셨던 고 김 호직 박사이다. 쿵박사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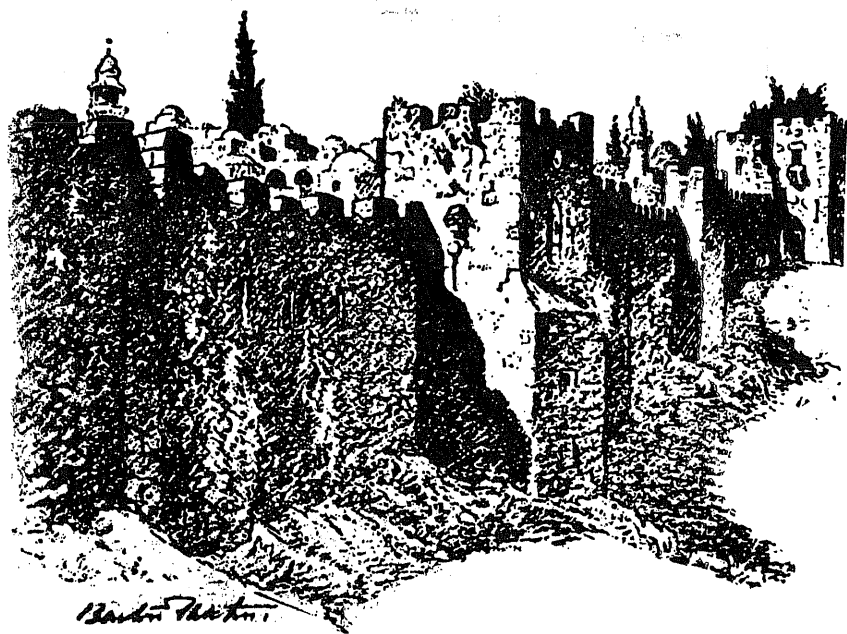
명하셨던 그분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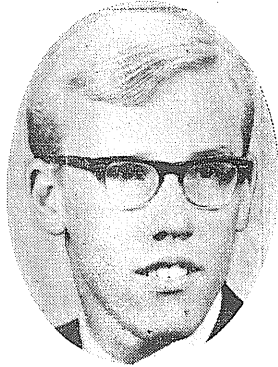
「내가 온 생애에 걸쳐 연구할때에 허다한 난관에 봉착 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혜택이다」라고 저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듯이 믿음을 통해서만 정신적 평화와 숭고한 기쁨과 사랑과 생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대학과 대학원을 가정교사와 장학금으로 무사히 끝냈다. 곧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연구 논문에 착수 했으나 연구비가 문제였다. 고심하던 중 너무나 고맙게도 5.16 장학회에서 연구비 십만원을 받았다. 이 귀하고 귀한 돈으로 힘껏 실험하여 박사 학위부 논문을 완성시켰다. 금년 3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때 나는 5.16 장학회를 찾아갔다. 몇번이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5.16 장학회는 나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의 처도 도와줬기 때문이다. 나의 처는 나보다 한해 앞서梨花여대 대학원에서 5.16 장학금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지금은 모교 강사로서 그녀 대로의 보람찬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으니 우리 가족이 유난히 5.16 장학회에 애정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나는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사로서 가난하기는 하지만 기쁨에 충만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

고 이제부터 참 학문을 탐구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방부장으로서는 한국 전역에 걸친 우리 말일 성도들과 정신적 양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성직에 앉게 되었다. 물론 이상의 것들을 성공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라는 높은 봉우리의 중간은 온것 같다. 높은 봉우리가 가깝게 느껴지니 말이다.

나는 생각해 본다. 만일 내가 내일을 곰곰히 생각한 나머지 오늘에 충실하지 못했던들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책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마치 꿈과 같이 미련하게 공부, 또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이 충만한 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교사 초대

피터슨 장로

“이 지역의 포도원에서
힘써 일하겠다.”

하나님의 포도원 가운데서 특히 이 지역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몇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커다란 특권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곱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알려진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가지를 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선교기간을 이곳에서 봉사하게된 기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에서 일년 반여를 일하고 삼청지부와 광주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제게 광주지역 개척의 임무가 주어졌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일로 제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집과 가족을 떠나 돈지갑이나 두벌 옷을 갖지 않고 다만 주가 원하신다고 알아 먼곳으로 떠났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저는 복음 회복의 첫번 멧세지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윌포드 우드롭, 브리감 영, 팰리 피 프랫 같은 유명한 사람들은 첫번으로 외국에 파견된 선교사였으며 그들의 체험이 저의 신앙과 간증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 개척지역의 일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곳에서 얻은 영적인 귀한 경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바입니다.

제게 더욱 절실한 것은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시온에 이르

고자 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내했던 사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돈이나 돈지갑을 갖지 않은 채 기쁜 소식을 남들에게 전하고자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때 그 시절의 신앙의 선조들과 현재 이 새로운 포도원의 지도자들과를 견주어 봅니다.

장차 이곳에 있게 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절로 즐거워 집니다.

장차 이 성도들 가운데서 수 많은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친지와 벗이 이 회복된 교회에서 일하는 종의 무리에 합세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선교사들 처럼 교리와 성약(22장 18절)을 통하여 주가 권고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나 신앙으로 참고 견디는 자는 모두 부름을 받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이 모든 영광을 누리리라.” (교성 101 : 35)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유태주의 “시온”으로 떠나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날 주는 전 세계에 시온을 건설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지역의 포도원에 “시온”을 건설해야하는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온전한 헌신, 봉사, 노력

으로 일할진대 두개의 목표를 한번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왕국의 건설이요, 둘째는 한국 국민의 도움이 될 기구의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니 물몬의 이상으로 생애를 구체받지 못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하늘 왕국의 율법을 온전히 따른다면 인간이 이곳에서 갈망하는 행복과 새로운 삶을 다시 가져올 교회나 정부기관이 있을 수 없겠읍니다. 교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삶의 길입니다. 저는 이땅에서 특히 광주에서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 광주의 장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광주가 스테이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광주에 학동와드, 서석동와드, 월산동와드 등이 있을 것이고 광주 스테이크 농장, 광주 신전, 세미나 그리고 광주 스테이크에 부설된 고등학교, 대학교등이 현재의 성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맞지 않겠읍니까?

주의 포도원에서 다시 끝으로 가지를 치고 광주나 서울 혹은 그밖의 모든 지역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내리시기를.

저는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일한 기억이 영원히 남을 것을 확신 하며 만일 우리가 모두 충실하면 끝없는 행복의 전에서 우리가 모두 안식을 누릴 것(엘 40 : 12)을 확신합니다.

역원을 찾아서

(2)

—김 종균 형제편—



지난 27일 팔마 선교부장님택에서 열린, 부라운 부대관장님과 핁클리사 도와의 특별 오찬회가 끝나자 기자는 성북지부장으로서 초대받아 참석했던 김 종균 형제를 붙잡고 회견을 요청했다.

기 자 : 바쁘신데 이처럼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제님은 지금 성북지부 초대지부장으로 수고를 하고 계신데, 아직 장노정원회 회장직도 겸임하고 계시죠?

김형제 : 네, 그렇습니다.

기 자 : 그러니까 성북지역 모임이 지부로 승격된 것은 언제쯤인가요?

김형제 : 4주일 전쯤됩니다. 아직 제 2보좌는 없고 제 1보좌로 장기호 형제님과 서기로 안병호 형제가 임명되었습니다.

기 자 : 김 형제님이 회원되신 것은

언제쯤인가요?

김형제 : 1960년 7월에 서부지부에서 엘리스 장노로부터 참례를 받았습니다.

기 자 : 대신권은?

김형제 : 날자는 12월 30일인데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64년쯤 될겁니다.

기 자 : 말일성도가 된 동기쯤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형제 : 글세요. 실은 제가 국민학교 4년부터 감리교회에 반동무하고 같이 2~3년 다녔고 중학교에 들어가선 6.25로 중지 되었다가 대학 2년째쯤 다녔습니다. 그땐 아현감리교회에 다녔는데 3학년때 군대에 들어가서는 군인 교회에 꼬박 참석하였읍니다만 군복에 따라 교리가 다르니까 일정한 교회에 다녔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60년 5

월에 제대하게 된 후 선교사가 저희집을 방문한 것이 동기가 되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 자 : 김 형제님은 현재 대학 강사로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나가십니까?

김형제 : 주로 서울 대학교 문리대에 나가고, 국민대학에도 나갑니다. 그외엔 해양 생물 연구소 특별연구생으로서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기 자 : 전공이 식물학과니까 그 계통을 강의 하시겠군요.

김형제 : 네.

기 자 : 직장에서 대개 몇시에 집에 돌아 오십니까?

김형제 : 6시 30분부터 7시사이입니다.

기 자 : 집에 오시면 가장으로서의 일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물몬가정을 이룩하신 이후로 우리가 물몬 부부였기에 다른 사람보다 이런 점이 달랐다면 지 좋은 점이라고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김형제 : 남에겐 관심이 없어서 비교해 보질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식사시간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잘 안되더군요. 그렇지만 아침 저녁 식사때

는 함께 기도하고 점심엔 각각 따로 기도하고 먹습니다.

기 자 : 김 형제님이 물몬가정을 이룩하신 것이 언제이지요?

김형제 : 작년 12월 19일입니다.

기 자 : 그동안에 혹시 최자매님께서 김형제님을 위하여 해주신 일중에서 김형제님이 가장 기쁘게 여겼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김형제 : 별로 없는데 같습니다.

기 자 : 그럼 그 반대의 경우로 의견 대립이나 다툼 같은 것은?

김형제 : 벌써 그런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하하(안정속으로 눈을 조용히 깜빡하며) 우리 그런 이야긴 고만 둥시다.

기 자 : 미안합니다. 화제가 이상하게 흘렀군요. 김형제님은 취미가 무엇인지요?

김형제 :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 자 : 조용히 있는 것과 운동은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김형제 :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서 좋다고들 합니다만,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모두들 놀랍니다. 특히 농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지요. 학교에선 저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웃음)

기 자 : 집에 돌아 오시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김형제 : 직업이 그러니까 주로 독서라 하겠지만 그것도 잘 안되더군요. 원래 잠을 많이 자는 편이라서.

기 자 : 아내되시는 최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즐기시는 오락은?

김형제 : 오락을 위해 함께 지낼 시간은 별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질문 안하기로 합시다. (웃음)

기 자 : 혹시 가정 건설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김형제 : 너무 가정에 소홀 했구나 하는 생각 뿐이라 내가 먼저 잘 해야겠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습니다.

기 자 : 성북 지부장으로서는 지면을 통해 지부 회원들에게 요망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실까요?

김형제 : 이것은 전 지부의 문제겠지만, 지부장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은 지부장 만큼 자기 지부라는 느낌을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들면, 이것은 기사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기하는 기자에게 손을 내어 저으며 만류) 지부 예배당 청소를 한다해도 좀 성의가 있어야 하고 지부일에 애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 자 : 네, 그렇죠 가끔 저도 보는 일입니다만 지부에서 무슨 활동이나 행사가 있는 후에 뒤처리라든가 정리를 회원들이 함께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모두 핑계쳐 버리고 가버리니 결국 지부장이 혼자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럼 끝으로 전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김형제 : 회원들의 교체가 빈번하고 교회 연령이 어려서인지 늘 배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래된 회원들도 어떤 것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고 역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할일을 모르고 있는거죠. 모두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만 도서실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수시로 공부해서 서적을 통해 각자의 임무나 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기 자 : 네 동감입니다.

(이때 밖에서 자동차의 크락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부러운 부대관장님과 핑클리 사도님을 전송하기 위하여 김포 비행장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으니 나오라는 신호였다.

26 페이지에 계속

지 부 소 식

〈서부지부〉

★ **응변대회** : 상향회에서는 3월 30일 많은 성도들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부 응변 대회를 가졌다. 이상한 형제는 「참된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연제로 일등을 차지했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분발의 분화구를 연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소근소근.

★ **봄맞이** : 교회에서 한시간 반동안 성도들이 모은 꽃과 나무를 심고 한진관광편을 이용하여 50여명의 성도들이 금곡으로 소풍을 갔었다. 상향회가 준비한 다채로운 순서로 하루를 즐겼는데 특히 지부장님의 아리랑을 부르시며 사뿐사뿐 추신춤은 그야말로 일품.

〈삼청지부〉

★ **역원 개편** : 오랫동안 청남상향회 회장으로 일하시던 고원용형제가 주일학교 제1보좌로, 청남상향회 회장에는 주일학교 회장이었던 이봉구 형제가 임명되었다. 한편 주일학교 회장에는 제1보좌였던 김동길 형제가 임명되었다. 청녀상향회 제2보좌에는 성영숙 자매가 일하게 되었다.

★ **지부 식목** : 식목일을 마지한 삼청지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교회 옆 빈터에 잔디를 떠다 심었으며 아래 운동장가에는 회원들이 가져오고 지부에서 준비한 꽃씨와 구근을 모종함으로 개나리와 벚꽃, 버들이등 아름다운 삼청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꾸밀 것이라고. 특히 이날 중 고등 여학생들이 준비한 점심을 같이 나누어 먹은 다음 배구, 농구 등으로 하루를 즐겼다.

〈성북지부〉

★ **지부장단 조직 완료** : 그동안 지역단위로 집회를 가져오던 성북지역이 지부로 승격하여 발전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던 지부장단 제2보좌의 직을 지방에 계시던 민경옥형제님이 맡으심으로 완전한 지부장단의 조직을 갖게 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 한가지는 지부장단에서 일하시는 분은 모두가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계시다는 점.

〈동부지부〉

★ **농구 우승** : 지난 4월 22일 지방부 주최 서울 지역 농구 대회에서 경기와 응원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였다.

신비한 영혼의 언어

윤
덕
병

創世紀 以前부터
보헤미안은
빙어리 었읍니다.
불구자로 태어나도
맘껏 生을 찬미할수 있다면
배배꼬인 권태의 맛줄을 늦추겠읍
니다.

굳어버린 눈동자
파열된 편각위엔
하늘도 太陽도 빛을잃어
젯빛 얼굴이 되어줍니까.
아아 우주는 억만조각의 生命들을
실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산과 바다의 갈림길에서
형제는 영혼을 줄달음쳐가고
망서림끝에
조류는 산도 바다도 잃어버립니다.
表情없는 密語들로 生을 斬疏한
未練이 전율을 심호흡을
마구 되삼키는 병어리라면
나는 보헤미안이 아니랍니다.

당신은 마음 문을 여시고
층층의 비밀을 이야기하여
보헤미안으로 하여금
당신이 되고 싶도록 하시겠읍니까.
오늘과 來日의 영원한 음향속을
그렇게만 신성한 존재로 앉아있을 그리스도여!
나는 그리스도 당신을 알때까지
아무것도 아니여야 합니까.

마지막 싸이렌도 아마 곧 울릴겁니다. 그렇다고 밤이 주는 意味를 뜻하려는
건 아니랍니다. 소심한 성격이 비쳐낸 운명에 대한 저주 따윈 더구나 문제도
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선교사에 의하여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向한 오듯한 情과 恨을 피워보
고픈 마음에서 랍니다.

막상 그리스도 당신을 向해 기구를 바램할 땐 이 좁은 가슴에 그다지도 많이
깃들여 있었던 사연들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너무나 허황한 꿈이었
기에 오늘도 어렴풋이 떠오르는 꿈의 조각을 모으며 이 마음을 띄우렵니다.

나는 오늘 선교사를 통해 당신을 처음 알았던 언덕길을 거닐다 내려왔습니
다. 오늘같이 이렇게 휘영청 달이 밝은 밤이면 나는 홀로 아무런 생각을 지니
지않고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다만 당신 생각만을 하면서 조용한 길을 홀
로 거니는 버릇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났읍니다.

거리의 온갖 네온이 황홀하게 빛나고 변화한 거리보다는 차라리 이처럼 조
용한 언덕길이 나에게는 좋았읍니다. 소리없이 내려 앉는 낭만을 보듬으며 안
타까움과 그리움이 겹친 마음을 안고 걸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나에게 더욱 좋
았읍니다. 어린날의 그오랜 바람과 기다림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꿈이었지
만 그 꿈을 채워보려고 이 길을 거니는 것이었읍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요,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는 현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태여 과거로 돌
아가고픈 마음도 아니랍니다. 아니 현재의 상태가 비록 불안가운데 헤맬지라
도 당신을 알지 못했던 과거는 지니고 싶지도 않아서 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 와서 생각하니 선교사를 통해 당신을 사귄수 있었고 꿈이 어린 언덕을 거
닐며 당신의 말씀을 음미하여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낭만이었으며 또한 한쪽의 아름다운 미완성의 꿈이었읍니다. 모든 것이 꿈
일지라도 나는 지금 깜박이는 촛불을 앞에 놓고 이러한 지난날을 더듬어 이야
기 할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썩 오랜 지난날을 추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날들의 추억이 즐겁거나 슬프거나 간에 人生살이에 있어서 썩으나 아름다
운 것입니다. 그 누가 세월을 전광석화라 한 말이 오늘에야 내 心擘을 울리고
있는것을 깨달았읍니다. 비록 이제 겨우 20여년을 살아온 나이지만 지난날을
돌아 보면 즐겁고 슬프고 괴로웠든 나날이 피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
람들이 앞날을 살아가기 위한 이상이 충만한 설계에 비하여 현실적이며 얼마
든지 더 낭만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꾀없는 낭만 때문에 人生은 얼마나 더
즐거운 것인지 모른다고도 생각하곤 했읍니다. 그러나 내겐 남모르는 은밀한
근심을 혹은 내 자신마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걱정스런 번뇌들을 마음속에
지녔을땐 실로 그것은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안타까운 상념에 사로잡
히는 것이기도 했읍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에 불안을 느끼고 그
무엇에 대하여 생각에 잠기면서 침울해지고 또 심하면 눈물까지도 흘렸었읍니
다. 그러나 그리스도 당신의 산상수훈이라든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라

고 갈파한 초신비적인 人生哲學을 음미하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의 아름다움에 깨우쳐지는 이러한 수심과 우울의 감상에 젖은 간격을 뚫고 넘쳐 흐를듯한 젊은 삶의 즐거움과 희망에 찬 감정이 마치 선풍과 같이 이렇게 헛된 마음의 작란을 언제까지나 같은 환상의 주위를 무서운 속도로 맴돌때 내가 해야 할바를 깨우쳐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황한 공상과 바램이 사라져가면 외로움과 우울과 그 무엇에 대한 향수가 일시에 내 앞으로 역습해 오는 것을 막아 낼수 없었습니다. 이럴때면 너무나 몽롱한 느낌이 나를 못살게 괴롭힙니다. 이럴때면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못견딜 나의 심정을 알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나에게선 이제 이렇게 괴로워 기다림의 쾌감마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밖에 계곡을 타고 애잔히 들려오는 물소리와 고요를 머금고 훑달리는 가랑비는 비할때 없이 슬퍼지는데 당신의 사랑의 교혼은 암흑에 비취인 외로운 영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꼭 맛있는 과자를 물고 발을 베풀거리는 어린애처럼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만족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신과 아는 동안만은.....

핏방울은 몸속에서 뒤끓고 가슴엔 무언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꼭찔었습니다. 그것은 무어라 말하지 못할 새로운 것이면서 또한 이상 야릇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접근해 오는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내 시야로 부터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곧잘 높은 등성이에 올라가서는 거기에 걸터앉아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불행한 인간이라는 침통한 얼굴을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라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애처러워 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우수에 잠겨볼량으로 집을 나와 해매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화창한 날씨와 상쾌한 기분과 재빠른 발의 움직임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또 싫으면 두텁게 깔린 잔디위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느긋함과 조용히 몸을 눕히고 팔베개를 베고 누워서 푸른 하늘을 우릴을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 이런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감정과 희망과 의욕과 즐거움과 괴로움이 한데 얽려 선풍처럼 소용돌이친 마음의 교차로였습니다. 이럴때가 찾아오면 환희로 맞아 비애로 돌려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괴롭곤 했습니다. 이렇게 혼돈된 감정속에서 살다가 사라져갈것 같습니다. 인간은 날때부터 즐거움보다 괴로움을 더 많이 가지고 나는것 같습니다.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질어가는 나의 안정성과 반면에 자라나는 불안함이 한편 구석에 엄연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항시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자체를 구성하는 분자인 성품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역세계 곱힐줄 모르는 고질적인 고집과 환경은 갑자기 그리스도 당신과 나 사이에

알 수 없는 어둡고 짙은 구름이 생겨난 것을 자신을 저주하여 울부짖으며 다만 조용히 묵과하면서 당신과 나는 너무나 인연이 멀었나 봅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무한한 꿈을 꾸었고 때문에 지금까지 生活해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것을 나에게 지너다 주었습니다. 내게도 분명히 당신을 마음가운데 품었을 때 生의 즐거움을 맛볼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괴로움의 교차로에서 방황은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화려한 시절이었고 추억어린 날들이었습니다. 나의 기구한 운명의 피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고 다시금 깨끗이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숨김없는 제 심정입니다.

외롭고 약한 자의 벗되신 당신 예수그리스도여!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 올자가 없나니라>하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접어두고 세상을 뜻있게 살려면 바른 길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영원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바를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계속하기엔 내 마음이 너무나 약하고 피곤해진것 같습니다. 그럼 더쓰고 싶은 마음 영원히 간직함으로 당신과 함께한 행복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느낀 계보사업

최 정

계보 사업에 부름을 받아 공부하는 중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업인가 하고 생각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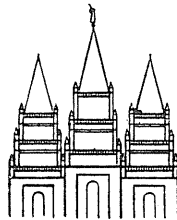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은 특별한 사업을 주셨구나”하고 생각할때 스스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신앙이 부족한 탓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보사업이란 무척 귀찮은 것인데 구태여 이 힘드는 계보사업을 꼭 해야하느냐 계보가 없어도 삶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편안한 대로 삶을 이어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현재 자유 의지로서 자기능력, 실력대로 다소의 포부를 가슴에 안고 희망에찬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은 일 반 동물과 식물과는 달라 나고 지고 만 가지고는 안되는상 싫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생각하게 되고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 사업에 종사하고 은혜를 받지않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업의 진실성과 중대성과 필요성을 새삼스레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인류의 계보를 전해야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계보 기록을 참고로하여 모든 발전의 기초가 이루어 지는 것이니 이 사업의 중대성은 자못크다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계보 위원들이 다시 없이 귀중한 강습기간에 임하고 보나이 사업에 대한 긴박감과 절실감이 육더 느껴집니다. 소홀히 여기던 나는 이 계보사업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조직이 세밀한데 놀랐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으로선 생각으로도 미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습니다.

하루 속히 이 사업이 완성되어 각계의 도움을 바탕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이 계보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바로서 한국계보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무한히 기쁘고 흐뭇한 마음 지금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미약한 나 자신이 끼여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앞두고 조심스런 마음에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계보하면 “옛 할아버지들이 긴 담뱃대를 두들기며 양반 상놈에 대한 푸념이나 갓 쓴머리 밑에 저푸린 얼굴로 도포자락만 어루만지는 심경에 사로잡히는 옛 사회제도”를 연상하여 우리의 이 거대한 사업을 잘못 생각하여 그릇된 편견으로 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실행중인 이 계보사업은 벽촌 사랑방에 햇빛 구실이나 사대주의 사상에 맞장구 격은 물론 아니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몰랐던 조상들을 기록으로 체계

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의 기회를 주고 대리 침례를 주고 신전 결혼의 절차가 이 계보에 속하며 우리의 현 가족 기록이 올바르게 기록되며 가족이나 조상들의 사함을 후일에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항상 알고자 할 때 해결 할 수 있는 근거로 기록해 두자는 것에 목적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항상 바른 생활을 하여 후손에게 바른 생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대로 삶을 이어가도록 해야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 속에 참되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며 하루 속히 완성의 날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조를 찾자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 : 5~6

地方部 相互向上會



농구대전 실황 중계

4월엔 빅 이벤트가 많았지만 운동 경기로는 농구가 피크였다. 축구나 탁구 그 밖의 종목도 상당히 인기가 있지만 아마 처음으로 교회 농구 코트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열광의 도가 높아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연례 행사로 농구대회를 지역별로 가졌다가(서울과 남부로) 작년엔 전국 대회로 통합해서 새로 트로피를 작만 했는데 금년에는 서울만 따로 경기를 가져 다소 유감이었다.

경기 일자엔 오래 전부터 4월 22일로 발표되었었고 예정대로 경기는 진행되었다. 참가팀은 청운, 삼청, 서부, 동부의 네 팀이었고 막내들이 지부인 성북지부는 출전을 준비했으나 결국 하지 않았다. 대전 결정은 당일 추천하여 작년의 대전 그대로인 동부대 청운, 삼청대 서부로 추천되었다.

첫 번으로 삼청대 서부는 긴장의 극을 그대로 서로 누벼야 하는 일종 거친 플레이를 벌려 시종했다. 게임 종료때 스코어 보드를 보니 18:17이었다. 삼청의 진승.

운동경기 전 종목에서 이상스럽게도 승운이 없는 서부는 이날도 전혀 새로운 팀 정비로 주력 선수 2명이 빠진 삼청을 맞아 패기 만만하게 싸웠다.

전반을 9:8로 끝내 한점을 뒤졌던 서부가 후반에서는 한때 5점까지 스코어를 리드하고 있었으나 패스 미스 및 반칙의 악운이 겹쳐 눈앞에 가깝게 다가 왔던 승리를 또다시 삼청에게 양보하고 말았다.

두번 째의 경기였던 동부대 청운전은 패기와 패기의 격돌이었다. 개인기와 팀웍에서 우세를 보이는 동부가 청운에 고전했던 것은 청운의 젊은 패기를 쉽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연습 부족으로 슈팅에서 자기 페이스를 찾지 못한 위에 장신의 동부를 뚫지 못해 전반은 8:6으로 리드를 뺏겼고 총 스코어 16:6로 게임을 끝내야 하는 아픈 패배를 안았다. 사족하나 이날 사용된 공이 또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모든 선수가 다 정상 기술 발휘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어쨌든 동부는 작년의 패배를 설욕한 채 청운을 격파한 바람을 휘몰아 삼청을 맞았으니 언제나 라이벌 동부와 삼청은 여기서 다시 부

딛쳐야 했다.

게임 초반에서는 오히려 삼척이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펴는 듯 했으나 신장과 체력, 그리고 팀웍이 미급하여 총 스코어 42 : 32로 쉽게 흰기를 들었다.

선수 10여명이 출전한 동부에 비해 주력을 참가시키지 못한 위에 남자 선수 5명, 여자 선수 한명으로 게임을 감당한 삼척이 강호 동부를 맞아 선전한 것을 높게 칭찬해 주고 싶다.

이날 오랫동안 농구 트로피를 손에 잡은 동부가 응원상 까지를 얻는 행운을 닦고 신임 지부장이 맞는 첫번 경기 행사를 영광으로 이끌었으니 역시 축하해야 할 일이었다.

이날 흐뭇했던 것은 지방부장님과 선교부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일이며 지방부 역원의 노고와 배려로 흥미진진한 선교부장단대 지방부장단의 오픈게임이 마련되었던 사실이다.

이 밖에도 이날의 수확으로 가장 많은 회원의 동원을 들수 있고 가장 질서 정연한 순서 진행을 들수 있겠다. 선수가 심판에 대한 태도도 좋았고 특히 최후의 순간에서 역전패를 당한 서부가 건전한 스포츠크 맨쉽으로 심판에게 순종했던 것은 분명 성장의 표시요 형제애의 발로였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나 이날 뜻있는 형제 자매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이 전혀 없었

던 것은 아니었다. 운동 경기에서 승패에 대한 집념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운동경기 자체의 목적을 인식하는 일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적이 되어 서로 싸운다고는 하나 그것은 운동경기를 통해서요 결국 하나인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의 이해와 성장과 사랑을 키우겠다는 숭고한 목적이 분명히 전제된 것이 아닌가?

이날 비로소 농구 코트에서 얼굴을 비친 우리의 비회원 형제는 모두가 선교사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며 스타 플레이어로 활약한 그 모든 형제들이 모두 교회에 남아 물문의 농구 수준을 높은 위치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복음은 전제며 또한 복음은 생활이다. 부족한 지도자라도 이를 존경하고 이에 순종할 수 있는 참 복음의 정신을 기른 뒤 내년도 농구 경기에서는 보다 큰 결실을 추수할 수 있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남부 지부는 개별적인 경기를 가졌고 경제적인 방편이 마련되지 못해서로 함께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곧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도록 모두 합당한 복음의 생활을 지켜가야 겠다.

韓國語版 물몬경을 마지하여.



<부산동구 송재현>

이달에 들어 드디어 한국어로 번역된 물몬경을 손에 넣게된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몬경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경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나 “성도의 벗” 4월호의 권두언을 한번씩 읽어봄이 좋을 것 같다.

신약 성경에서 참조해 볼 수 있는 성구중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대목이 기억나는데 사실상 이 세상에는 어른들 즉 아버지님들의 뜻을 이해못하는 연고로서 야기되는 사회악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못하는 아버지님들의 수가 늘어남으로서 빚어지는 사회악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드워드”가 읊은것 처럼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시구의 한마디는 이 말을 잘 입증해주는 한 예가 되지 않을까 한다. 새술과 헌술에는 얼마나한 차이가 있

는지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판단이 곤란하나 사람을 취하게하는 한가지의 목적에 귀결하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듯이 성전중의 신구약이 서로 동질의 것이며 또한 이 두 경전이 오늘날 우리 물몬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몬경에 실려있는 기사와 그 증거코저 하는 내용이 한결같이 일치하는 성스러운 책이라는 것을 의심해볼 여지가 없으며, 마치 맑은 물에 고기가 잘 놀지 않듯이 물몬경을 대하는 기성교인의 마음 가짐이 어찌면 이렇게도 하나님의 새 말씀을 받아 믿기가 어려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이 경전은 독자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영험한 능력을 지녔기에 불의한 마음 가짐으로는 읽어갈 흥미를 느껴보지 못하게 하는 연고인지도 알 수 없다. 구약 성경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새술로 비유된다면, 신약성경에 대한 새술은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 새술은

새푸대에 간직해야 하듯이 새 경전은 보다 의롭고 지혜로운 마음 가짐으로가 아니고는 그 곳에 약속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국어판 물문경의 발간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어 예측키 어려운 많은 애독자가 생길 것이 기대되며, 우리 성도는 이

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깊고 넓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 노력해야겠다.

이토록 아름다운 물문경을 만들어 내는데 수고하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경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길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성도의 벗 구독 장려>

포스타 현상 모집

성도의 벗이 조판 인쇄되고 내용도 명실공히 충실해 집에 따라서 더욱 많은 성도들에게 널리 읽히고자 다음과 같이 성도의 벗 구독장려 포스타 현상 모집을 하오니 많은 성도들의 응모있기를 바랍니다.

다 음

가. 내용

성도의 벗을 읽으려는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짧은 표어를 담은 것으로서 자유로 할 것.

나. 규격 :

크기—모조지 반절

색깔—3 색이내

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라. 마감 : 1967년 6월 30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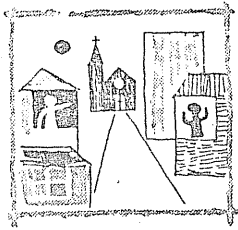
마. 제출장소 : 성도의 벗 편집실

바. 응모요령 : 원고 후면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 소속 지부명을 명기할 것

사. 시상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성도의 벗 1년분과 상금 1,000원을 시상함

아. 당선작발표 : 성도의 벗 7월호

자. 심사위원 : 편집위원



멀리있는 성도들

홍 병 식

第3話

約 3個月 前에 있었던 일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Texas Whitehouse 에 있었을 때 백아관 공보비서와 신문기자들 사이에 聲明戰이 있었습니다. 내용이란 일요일에 존슨 대통령이 교회에 갔을 때 그 一行의 自動車들이 時速 80 마일 내 는 100 마일로 잣다는 것이 었고 백아관측에서는 그런 高速度로 간적이 없었다는 간단한 성명전이었습니다. Texas 주의 주법을 그곳에 가 본적이 없는 저는 모르나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의하면 시속 65 마일을 넘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이 좋고 또 이곳 운전의 습성을 따라 보통 70 마일까지는 경찰이 벌금 딱지를 주지 않고 있으며 80 마일 정도로 달리는 사람들이 不知其數인 이곳의 상태를 生覺해볼 때 一國 大統領이 80 마일 이상으로 달렸다는 사실이 言論陣의 一화을 받았고 또 그것을 기어코 부인하려 애를 쓰는 백아관측의 태도는 분명히 저에게는 큰 교훈 거리였습니다. 전 필립핀 대통령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 현직 대통령으로서 별

금을 물었던 일들을 일련으로 生覺해 보면서 이러한 흐뭇한 실화가 언젠가는 우리 나라에서도 생기겠지 하는 즐거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第4話

미국에있는 한국인들 중에는 확실히 남자들 수가 여자들 수 보다는 많 습니다. 그리하여 노총각들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 한다는 것이 이곳에서 그다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가족이나 서신을 통하여 여자를 구하여 이곳에 데려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사 교섭 과정에는 여러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합니다. 대개 이곳에 있는 신랑측의 태도는 여자가 이곳에 到着하자마자 소위 “야코”를 죽여 놓아야 한다고 믿는 남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男女를 막론하고 기죽기를 싫어 하기는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첫째 가리라고 봅니다. 약 4年前 이곳에는 한국에서 大學을 나와서 이곳에서 留學을 하고 있던 金모라는 사

란이 있었읍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례를 따라 한국에서 아릿따운 아가씨를 데려오게 되었읍니다. 아가씨가 도착 하던 날 그는 옷모양도 내고 자동차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번화한 모스안젤스 空港으로 나가 아가씨를 마지하엿읍니다. 여자가 띄 高姿勢인 것을 알아챈 그는 네온싸인이 휘황찬란한 콩치위의 유원지로 아가씨를 데리고 잘하는 운전 습씨를 과시하면서 갔읍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화려한

장관에 감탄한 줄만 알았던 그 여자의 첫마디는 “흥, 미국이 뭐 이래?” 였다 합니다. 물론 그 결혼은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뭐 이래? 는 그후 이곳 한국인들간에 꽤 유명해져서 지금은 유행어 비슷하게 되었읍니다. 즉 너무 제지 말라,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 너는 내맘에 들지 않는다 等等의 혼한 심리가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 이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개신 흥병식 형제가 보내주신 것을 3호에 처음 부분을 실리고 이번엔 나머지를 실은 것이다. 흥 형제님은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가장 훌륭한 성도의 한분이시다.



독자의 편지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알찬 내용이라든가 재미있는 기사등, 나날이 발전하는 것음 볼때 무척 기쁘
 문 순
 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이번 3월호 선교부장님의 권두언에서 미국외의 물문경 출판은 1831
 자 매 님
 년 정말에서 시작되어 번역, 인쇄 되었다고 했는데 그 몇줄 아래 1861
 보내 주신
 년으로 정말어의 번역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글월 감사했

또 p38 고려시보 기사중의 물문교는 1920년 동부 아메리카에
 습니다. 한페이
 서 시작 Pophph Smith Jr.가 창설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지 한 글자를 소훈
 (한글)에서 토씨 하나가 잘못되도 글의 뜻이 아주 달라 히 넘기지 않은 자매님
 지대, 숫자의 착오라든가 고유명사의 철자의 틀림은 의 아검과 정성에 거듭 감
 아주 다른 뜻을 가져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립니다.

물론 그런 잘못은 우리들에게는 별뜻이 있지
 물문경의 정말어 번역이 최초의
 마는, 치음보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것이었고 그 연대는 1851년이며 그후
 이다 생각됩니다. 더구나 책에 실려진
 체코슬로바키아어 바로 뒤에 정말어로 되
 기사가 아니고, 신문이고 보면....., 어있는 것은 알트레이크에서의 인쇄를 뜻합

취제하시는 분은 몰라서 그랬
 니다. 외부 신문에 실린 오자 및 오도된 기사
 다 해도 전해주는 우리가 좁
 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주의 해야
 더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
 할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대체로 오자가 실리는 것
 으면 안되겠습니다. 은 우리측의 과오인 경우 보다는 신문사측의 과오인 경우

분별이 따사한 다
 가 더 많습니다. 더구나 영어가 능숙치 못한 기자가 미국 선
 음호를 기다리
 교사를 접견할 때는 더 많은 착오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어쨌든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김자매님의 말씀과 같이 정확한 옛
 김 문순
 세지를 전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안녕(편집실)

자매

編 輯 後 記

도약하려 했을 때, 그것은 차라리 향수요 그리고 아쉬움이 뒤범벅된 설레임이었다. 아니 그것은 또 두고 두고 비르던 혼곶날을 맞은 순한 새악씨 심정이란가?

물본경을 인쇄한 고진계에서 성도의 벗을 인쇄하게 된 것은 재미있는 인연이라 하겠고 이제는 빈명할 수 없는 작업의 타로 밀려온 성도의 벗을 위해서 다만 더 큰 성도들의 성원이 있기를 빌 따름이다.

☆

☆

☆

소리없는 성도들의 독축을 들으며 한치 한치 지면을 준비했고 처음으로 인쇄의 작업을 돕는 서툰 손길은 사뭇 흥분되어 있었다. 오랜 오랜 가뭄이 계속되는 속에서 단비를 기다리는 그런 맘으로 어쩔수 없는 진통을 참아야 할 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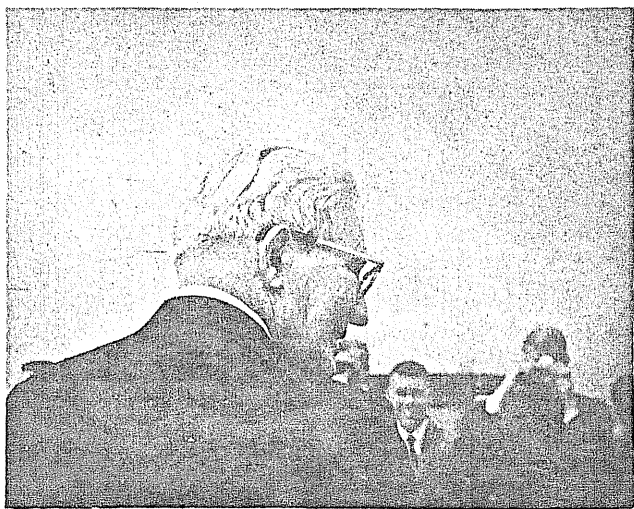
조용히 그러나 야무진 맘으로 아침을 맞아 본다.

(상)

환 영

IBYU 농구단 래한

7월 28일 8월 1일



날 따르라

—말씀은 본문 5 페이지에—

(휴 비. 부라운 부대관장)